

분체도료 수급불균형 "위험수위"

96년 공급 2만7600톤 · 수요 2만2000톤 ... 환경친화형 도료 무색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100% 고형분으로 최근 VOC규제가 강화되면서 큰폭의 성장세를 구가했던 분체도료시장이 95년하반기 이후 극심한 수급불균형에 시달리면서 시장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5년 계속된 증설경쟁에다 96년 삼화페인트의 신규진출마저 겹쳐 공급과잉상태가 위험수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등 가격과 물량면에서 시장악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국내 분체도료 생산 · 판매현황
(단위: M/T, %)

구 분	1994		1995		판 매	
	생 산	판 매	생 산	판 매	증감률	점유율
고려 화학	6,260	5,690	7,000	6,400	12.5	31.5
건설 화학	1,800	1,700	2,850	2,600	52.9	12.8
대한 I P K	5,800	5,300	6,350	5,800	9.4	28.6
조광페인트	2,500	2,300	2,550	2,300	0.0	11.3
현대페인트	1,650	1,500	1,900	1,800	20.0	8.9
L G 화학	150	150	1,450	1,400	833.0	6.9
합 계	18,160	16,910	22,100	20,300	20.0	100.0

관련업체에 따르면, 95년 국내 분체도료 생산은 2만300톤으로 94년 1만6910톤에 비해 2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반해 수요는 95년기준 2만톤으로 94년 1만8000톤에 비해 11.1%에 그치는 등 전체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가전제품용 시장이 95년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와 동남아 라인이전 등으로 10%이상 감소되면서 최근의 수급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수급불균형 상태는 93~94년 국내 분체도료시장이 환경친화성을 바탕으로 매년 30%이상의 대폭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자동 수요감소

로 어긋나고, 여기에 신증설이 이어지면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증설현황을 보면,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려화학이 95년상반기 기존 6500톤 생산능력을 8500톤으로 2000톤 증설한 것을 비롯 건설화학 1000톤(기존 1800톤), 조광페인트 1000톤(기존 2300톤), 현대페인트 800톤(기존 3000톤), LG화학 1000톤(기존 1200톤) 등 무려 6800톤을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96년현재 공급이 2만7600톤인데 반해 수요는 95년과 같은 10%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2만2000톤에 불과, 5600톤이상의 과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96년 삼화페인트가 최소한 2000여톤이상의 생산능력으로 신규진출할 경우 공급과잉폭은 8000여톤에 달해 시장과열이 심화될 조짐이다.

이같은 과잉폭은 가격면에서도 분체도료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원료가 상승을 계기로 95년 2월과 7월 두차례에 걸친 가격상승 분위기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6년1월 분체도료가격은 에폭시 폴리에스터계(백색기준)가 Kg당 3900원으로 95년초에 비해 13%정도 상승했으며, 에폭시계는 4100원, 폴리에스터계 및 폴리우레탄계가 5000~5500원선으로 1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5년 기업별 판매현황을 보면, 고려화학이 6400톤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으며, 대한PK가 5800톤으로 28.6%, 건설화학 2600톤 12.8%, 조광페인트 2300톤 11.3%, 현대페인트 1800톤 8.9%, LG화학 1400톤 6.9% 순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LG전자의 안정된 수요시장(연간 2500톤)을 바탕으로 선발기업인 고려화학과 대한PK의 시장을 점차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저널 1996/3/4>

